

'전라북도체육회' 새출발

전라북도체육회와 전라북도생활체육회가 '전라북도체육회'라는 명칭으로 통합돼 새로운 출발을 한다.

전북도는 22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회의 명칭이 '전라북도체육회'로 확정된 것과 3월 3일 창립 대의원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전북도와 양 체육회는 지난 해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공포에 따른 법률 공포 후 1년 이내 통합한다는 법률규정에 의해 통합 추진위원회를 가동해 통합을 진행해 왔다.

통합추진위원회는 전라북도 체육회의 정관과 시군규정, 종목단체규정, 종목분류 기준 사무처 조직기구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통합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초대회장은 도지

사를 당연직으로 한다는 정관 부칙에 따라 송하진 지사가 회장을 맡게 되고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해 35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 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밝혔다.

사무처 조직은 2차 1실 2부 7과 8팀으로 운영되며 전문체육분야는 스포츠진흥처에서 생활체육분야는 지원육성처에서 각각 맡을 예정이고 공통 업무 분야인 예산, 인사 등 경영관리과가 기획홍보는 경영기획실에서 관장한다.

관심을 모은 양 체육회의 직원들의 고용 여부는 통합초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전원 고용이 승계된다.

김인태 전라북도 체육단체 통합추진 위원장은 "양 체육단체가 전북체육 100년 대계를 위해 출항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체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전북체육 및 전북의 발전을 위해 역할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체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구자철 결승골' 아우크스, 6경기 만에 승리

구자철(27)이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22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간) 독일 하노버의 HDI 아레나에서 열린 2015~2016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2라운드 하노버 96과의 원정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승리의 주인공은 구자철이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한 구자철은 전반 14분 개인 드리블 돌파 이후 직접 골까지 터뜨렸다. 경기의 결승골이었다. 구자철은 3개월간의 침묵을 깬다. 지난해 11월21일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시즌 3호골을 터뜨렸으나 부상 공백 등으로 인해 90여일 동안 골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시즌 네 번째 골을 신고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다. 구자철의 결승골에 힘입어 아우크스부르크는 6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다. 정규리그에서는 2연패를 탈출할 수 있었다.

/김민근기자



손연재, 제6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 수상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제 6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대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6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리듬체조의 손연재가 대상을 수상했다.

손연재는 지난 2014년부터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나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연재는 지난해 제7회 아시아리듬체조선수권에서 금메달 3개를 수확한데 이어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리듬체조에서도 3관왕에 오르며 이름을 드높였다.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손연재는 탁월한 기량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1일 끝난 모스크바그라프리에 출전했던 손연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지난 1954년 처음 시작돼 매년 시상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대상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을 오가며 활약한 박승희(스포츠토로)에게 돌아갔다.

/김민근기자

프로스포츠 선수 도핑 검사 의무화

문체부 3회이상 적발시 영구제명하기로 결정

앞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한 도핑 검사가 의무화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핑 검사 절차, 방법, 제재 등을 규정하고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문체부가 승인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한 도

핑 검사를 주관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그동안 프로스포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해당하는 프로스포츠단체는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이다.

지금까지 국내 프로스포츠는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등을 참고해 자율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도핑 검사를 받았다.

앞으로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와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검사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도핑 검사를 하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프로축구는 국제축구연맹이나 해외프로리그 등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 선수의 도핑검사 결과 시료가 양성이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최고 4년(1차) 동안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

프로야구와 프로배구, 프로농구는 미국 프로야구(MLB)나 일본프로야구(NPB), 미국프로농구(NBA) 제재 규정 등을 참고한다. 국내 실정에 맞게 제재 기준을 조정,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50%(1차)까지 경기 출전을 금지한다.

개인종목인 프로골프는 지금까지 프로골프협회에서 시행해 온 제재 기준을 유지 또는 강화하며 남녀 기준을 통일했다. 종목을 불문하고 3차 적발시에는 영구출전정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다만 특정약물 또는 오염 제제로 인한 규정 위반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경감될 수 있다. 제재를 받은 선수는 항소가 가능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선수는 물론 프로스포츠 선수까지 도핑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스포츠 선진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정몽규, 초대 통합 축구협회장 추대...9월까지 임기

"승강제 정착에 기대"

정몽규(54) 대한축구협회장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생활체육연합회)가 합쳐진 통합 축구협회의 초대 수장직을 맡는다.

대한축구협회와 생활체육연합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통합총회를 열고 정 회장을 새로운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통합총회에는 기존 대한축구협회와 생활

체육연합회 대의원과 새로 대의원에 포함된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 등 전체 83명 중 48명이 참석했다.

통합 전 대한축구협회장직을 맡았던 정 회장은 이날 탄생한 통합 축구협회의 수장으로서 한국 축구를 이끌게 됐다. 통합 축구협회의 공식 명칭은 대한축구협회로 확정됐다. 정 회장은 "김취 생활체육연합회장님께서 추대를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통합으로 축구협회가 하나가 돼 대한민국 축구가 더욱 발전할 것 같다.

(잡음 없는 통합 과정이다) 다른 스포츠에도 모범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와 생활체육연합회의 통합으로 엘리트 축구와 생활 축구가 하나로 결합되는 선진국형 조직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보다 넓은 저변속에서 우수한 축구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정 회장은 특히 이번 통합이 장기 프로젝트인 승강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는 프로만 1.2부로 나뉘어져

있고 하위리그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통합을 계기로 승강제가 3~6부리그까지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모든 축구인들이 축구 선수가 될 기회를 갖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이뤄진다면 대표팀 성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회장은 4년 임기의 새로운 축구협회장을 뽑는 오는 9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김민근기자

경찰, 축구선수 윤기원 사망사건 재조사

경찰이 2011년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차에서 숨진채 발견된 프로축구 윤기원(당시 24세) 선수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선수 죽음과 관련해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설 등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초서 형사과 1개 강력팀이 전담팀으로 지정됐다.

윤 선수가 숨진 직후인 그 해 5월 말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가 터져 선수 수십명이 줄줄이 입건됐다.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은 윤 선수의 죽음이 조폭과 관련된 승부조작 사건과 관계있을 것이라는 옛 동료의 진술을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족 등에게 협조를 구해 그의 사망과 관련된 재보를 한 선수들을 수소문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